

##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

최 해 립<sup>†</sup>

김 영 혜

서강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자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원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검토하였다. 2000-2005년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35명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35명 등 총 7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위과정 중 이수한 교과목 목록을 수집하였다.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평균 34.11, 박사과정은 34.47점이었으며 상담자 교육에 필요한 이론 과목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교육 실제에 해당되는 상담실습(counseling practicum)은 1-2학기 정도였으며 인턴십 과정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적인 실습훈련 교과목 구성을 위해 미국의 대학원 교과과정과 APA(미국심리학회)와 CACREP(상담교육프로그램 인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실습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점은 석사와 박사 모두 최소 48학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많았으며 이 과정 내에 상담실습과 인턴십(최소 1년간)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교과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대학원 상담관련 교과과정, 상담자 교육, 자격증 제도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에서 상담심리분과 학술발표(구두)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최해립,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E-mail : hrchoi@sogang.ac.kr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보면 개인의 정신건강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돕는 전문가의 활동이 요구되며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자살율과(OECD 국가 중 자살률 4위) 이혼율이 증가(OECD 국가 중 이혼율 2위)하고 있으며 국민의 8%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한국일보, 2003년 3월 27일자) 등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신호들이 보고된 이후 진로 및 직업 문제의 상담,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직업전문가 10인(정책기관연구원, 대학진로지도담당자, 기업인사담당자, 커리어컨설턴트 등)이 선정한 2010년 유망한 직업 순위에서 상담전문가가 5위를 차지하였다(세계일보, 2006년 1월 23일자)는 보도는 바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상담자란 전문적인 상담교육과 충분한 숙련기간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상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상담자들은 주로 상담심리 교과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상담전공 대학원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전문 상담자 양성을 위한 요건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 석사과정에서의 교과과목과 실습훈련 실태를 조사한 김정택과 도상금

(1993)의 연구를 보면, 42명의 석사학위 취득자 중 상담전공과목 및 상담관련과목을 5-6과목을 들었으나 실습과목을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을 경험한 학생은 64.3%였으나 봉사 장학생, 자원봉사자 등으로 실습하였고 주당 평균 실습시간은 1-2시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 중 상담한 사례는 평균 9.71사례로 실습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므로 석사과정 후 전문상담자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시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턴십 과정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심리학과 대학원 상담전공 석사과정에서는 논문을 제외하고 보통 24학점(8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전공 및 관련과목 이수가 5-6과목이고 나머지는 심리학 기본 과목들이므로 나타났다. 이를 계산해 보면, 교과과정의 평균 68.75%가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습훈련을 위한 인턴십 과정은 석사 과정 이후에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을 뿐 정규 대학원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과목 보충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였다.

최근에 이숙영과 김창대(2002)는 우리나라 상담전공 대학원 교수(최종 응답자: 총 38명)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에서 필요한 과목의 중요성과 그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는 과정(석사 혹은 박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연구에서 석사과정에서 개설될 필요가 높다(7점 척도상 6점 이상 점수 부여)고 응답한 교과목은 상담이론, 집단상담이론, 심리검사, 상담면접, 교육 및 심리통계, 상담윤리 및 법 등 6개 과목이었다. 또한 박사과정에서 가장 필요하다(7점 척도상 6점 이상 점수 부여)고 답한 교

과목은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 심리진단 및 평가, 가족상담이론(부부 및 성상담), 상담연구 세미나 등 4과목이었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상담에서 실습을 매우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습의 성격을 띤 4과목(개인상담실습, 집단상담실습, 상담면접, 상담현장실습)은 석·박사 과정에서 모두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일반대학원에서의 상담 석·박사과정 교과목은 전체적으로 이론중심의 지식이해를 돕는 교과목의 수가 실습이나 경험중심의 교과목보다 많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학생들이 이수한 교과목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위 연구와 같이 ‘어떠한 교과목 개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담 전공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선행 연구에서의 제언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학원 교과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에서는 미국의 몇 개 대학원과 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 상담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교과구성 및 상담자격증-대학원과정 간 연계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려 한다.

## 연구방법

###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0-2005년도에 석·박사

표 1. 조사 대상

|     | 박 사 | 석 사 | 계(명) |
|-----|-----|-----|------|
| 심리학 | 23  | 23  | 46   |
| 교육학 | 12  | 12  | 24   |
| 계   | 35  | 35  | 70   |

학위를 취득한 70명(석사: 35명, 박사: 35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교과목 이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총 13개 대학교(서울 소재 10개 대학교 59명, 경기 및 지방 소재 3개 대학교 11명)의 상담심리 대학원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신학과, 아동학과 등이 있으며 상담과목들이 가장 많이 개설된 학과는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오익수, 이명선, 남상인, 1994)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심리학과와 교육학과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학생들로 제한하였고 무선편의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표 1).

###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석사 취득자 35명과 박사 취득자 35명에게 2005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들이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목록을 전자우편 혹은 직접 수집하였다.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가장 정확하게 명시된 기록 자료(archival data)인 성적증명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 의견을 물은 후 허락한 경우에 한 해 이수 교과목 목록을 받았다(성적과 전체 평점은 삭제한 후 받음).

수집된 과목들은 SPSS/WIN 1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내용

수집된 교과목들은 앞서 살펴 본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한 범주들(상담전공 과목, 상담관련 과목, 상담실제 과목 등)을 참고로 본 연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첫째, 상담전공 과목으로 이것은 상담영역별 이론과 관련된 기본적인 과목들과 고급 이론 과목들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이론, 고급상담이론, 정신분석학, 대상관계이론, 가족치료, 고급가족치료, 단기상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론교육에서 다루어진 개별 상담이론에 대한 시연, 시범 등이 교과 내용인 과목등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 면접기술, 사례개념화,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상담중점

과목에 대한 교수의 시범, 특정한 상담이론에 따르는 심리치료의 예시, 모의 상담과정 시연 등 상담 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목들이다. 둘째, 상담관련 과목으로 이것은 인간의 전 생애발달, 개인차, 행동의 생리적 근거, 인지·정서적 근거, 사회적 근거, 동기, 정상·비정상 등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 행동의 진단 및 평가, 등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 과목들인 심리학 기초과목들이 포함되었다. 셋째, 연구방법론 과목으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양적·질적 연구방법론, 즉 심리통계, 연구 설계, 그리고 상담심리연구방법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실습훈련 과목으로 이것은 이론과 상담 실무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실제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경험해 보는 과목으로 상담 현장경험에 대한 수퍼비전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기타 과목으로 주로 인간이해에 필요한

표 2. 과목 분류

| 범 주   | 내 용  | 과목명의 예   |
|-------|--|--|
| 상담전공  | 주요 상담 이론과목들, 교수의 시범, 특정 상담이론의 예시, 모의 상담과정의 시연 등을 통한 상담 실무 교육이 포함된 과목들        | 상담이론, 대상관계, 인지치료, 정신분석, 진로상담 등<br>상담의 이론과 실습, 상담과정과 기법, 상담면접기법 등           |
| 상담관련  | 전생애적 발달, 행동의 생리·인지·정서·사회적 토대, 동기, 검사 및 측정 이론 등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 과목들 |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정서심리학, 이상심리학, 정신병리, 동기, 생리심리학, 심리검사/진단, 심리평가보고서 작성법 등 |
| 연구방법론 | 행동 설명을 위한 양적·질적 연구방법론 등의 과목들   | 심리통계, 다변량분석, 연구설계, 상담심리연구방법론   |
| 실습훈련  | 실제 상담 장면에서 경험한 현장 경험에 대한 수퍼비전을 포함한 과목들                                       | 고급상담현장실습 및 지도, 상담 및 임상현장실습, 상담인턴십(박사과목) 등                                  |
| 기타 과목 | 교육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계열 과목들  | 교육학 세미나, 교육사회학, 임상사회사업기술론 등  |

교육학·사회복지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반에 해당되는 과목들이다. 본 조사에서는 연구논문/논문지도 과목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나눈 교과목들은 표 2와 같다.

### 결 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석사학위 취득자 35명과 박사학위 취득자 35명의 대학원 교과목 이수목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과목 수는 784개였으며 석사과정의 평균 이수과목은 11.37( $SD=1.88$ )개, 박사과정 평균 이수과목은 11.49( $SD=1.58$ )개로 나타났다.

석사과정의 경우, 평균 11.37과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전공과목은 3.94개, 상담관련과목은 3.43개, 연구방법론 과목은 2.03개, 실습과목은 1.09개, 그리고 기타과목은 0.89개를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은 평균 11.49과목을 이수하고 있는데, 상담전공 과목은 4.54개, 상담관련과목은 4.31개, 연구방법론 과목은 1.11개, 실습과목은 0.83개, 그리고 기타과목은 0.69개를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 동안 상담전공 과목을 약 5개 정도, 상담관련과목은 약 4개 정도, 연구방법론 과목은 약 1개, 실습과목은 1과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사과정은 상담전공 과목 약 4개, 상담관련 과목은 약 3개, 연구방법론 과목은 약 2개, 실습과목은 1개 정도 이수하고 있었다.

한편 본 조사에서 나타난 과목들을 비율로 환산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석사과정에서는

표 3. 석·박사 과목 범주별 평균(표준편차)

| 과목 범주    | 석사          | 박사          |
|----------|-------------|-------------|
| 상담전공과목   | 3.94(1.30)  | 4.54(1.65)  |
| 상담관련과목   | 3.43(1.56)  | 4.31(1.75)  |
| 연구방법론 과목 | 2.03(1.18)  | 1.11(1.16)  |
| 실습훈련과목   | 1.09(0.89)  | 0.83(0.82)  |
| 기타과목     | 0.89(1.37)  | 0.69(1.13)  |
| 전체       | 11.37(1.88) | 11.49(1.58) |

표 4. 과목별 비율(%)

| 과목 범주    | 석사    | 박사    |
|----------|-------|-------|
| 상담전공과목   | 34.65 | 39.51 |
| 상담관련과목   | 30.17 | 37.51 |
| 연구방법론 과목 | 17.85 | 9.66  |
| 실습훈련과목   | 9.59  | 7.22  |
| 기타과목     | 7.83  | 6.01  |
| 전체       | 100   | 100   |

상담전공 과목은 34.65%, 상담관련 과목은 30.17%, 연구방법론 과목은 17.85%, 실습 과목은 9.59%로 상담전공 및 관련과목이 전체의 64.82%로 매우 비중 있게 구성되어 있다. 반면 실습과목 비율은 9.59%로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박사과정에서는 상담전공 과목이 39.51%, 상담관련 과목은 37.51%, 연구방법론 과목은 9.66%, 그리고 실습과목은 7.22%로 상담전공 및 상담관련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77.02%에 이른다. 그러나 실습과목은 7.22%로 전체 과목 중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7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수한 교과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석사과정의 경우 상담전공 과목은 약 4과목, 상담관련과목은 약 3과목으로 나타났다. 김정택과 도상금(1993)의 연구에서는 상담전공 과목수가 평균 3-4개, 상담관련과목은 평균 2과목으로 총 5-6과목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상담전공과목과 관련과목은 총 평균 7.37과목으로 약 2과목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 과목에 대한 항목이 없어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으나 예전보다 연구방법론 과목 개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목의 필요성에 따라 개설과목은 증가했으나 실제로 수강하는 비율은 석사과정 17.85%, 박사과정 9.66%로 많지 않았다. 연구결과에서 보면, 박사과정의 경우 거의 매학기 마다 상담전공 과목과 상담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비해 연구방법론 과목은 한 학기정도 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숙영과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 제언한 바에 따르면, 대학원에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높은 과목으로 상담이론관련 과목 2과목, 실습과목 4과목, 검사 및 평가관련 과목 2과목, 연구법 및 통계관련과목 3과목, 수퍼비전과 상담현장실습 4과목 등 기본 15과목이었다. 특히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과목으로 수퍼비전과 현장실습 과목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실습훈련에 해당되는 실습과목(위 연구에서는 수퍼비전과 상담현장실습에 해당)은 필요성이 높은 것에 비해 실제 이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의 실습과목은 총 1과목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석사과정의 경우도 1과목을 상회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들 중에는 정규 교과목에서 상담 수퍼비전 및 현장실습과목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경우가 석사 46%, 박사 60%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상담관련 교수들이 실습과목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차적으로 수퍼비전 혹은 현장실습관련 교과목 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상담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정규 대학원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학위중 혹은 학위 취득 이후에 상담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훈련을 쌓아야 한다. 석사생들의 경우, 졸업 후 인턴 프로그램이 개설된 상담센터에서 약 1년간의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석사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데, 현재의 대학원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전문상담자로서 활동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대학원에서 취득한 상담전공 학점만으로는 대학원 졸업 후 전문상담자로 활동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대학원 교육이 전문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담 및 상담자 훈련'에 보다 '상담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숙영과 김창대(2002)도 상담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상담자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과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많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택과 도상금(1993)의 연구에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데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담자 훈련에 필요한 실습 교과목 개설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문적인 상담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습득과 실습훈련 교과목의 개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교과목 구성은 살펴보고자 한다.

#### 미국의 대학원 교과목

미국 대학원 교과목의 경우 본 연구절차와 같이 석·박사과정에서 개인들이 택한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구해 비교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각 학기당 이수해야 할 과목을 나열하고 있고 요구되는 과목들(각 대학교의 2005년 상반기 현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함)이 구체적이어서 개인적 정보가 없더라도 그 교과과정을 알 수 있었다.

몇몇 대학의 예를 들어 보겠다. Boston College의 경우, 상담전공 혹은 관련 영역의 석사학위가 없는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77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전공 혹은 관련영역 석사학위가 있는 박사과정의 경우 68학점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다. 학점 구성을 보면, 1) 핵심전공 영역: 상담심리학의 주제들, 상담이론 등 중점과목이 모두 6과목(18학점), 2) 통계와 연구 설계 영역: 상담심리학에서 질적 연구 설계와 평가 등 7과목(21학점), 3) 심리평가 영역: 지능평가, 투사적 기법 등 3과목(9학

점), 4) 기초심리학 영역: 심리학사,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행동의 인지-정서적 기초 등 5과목(15학점), 5) 인턴십 영역: 1과목(2학점)이 공통적이며 6) Practicum 영역(상담실습): 이것은 상담전공 석사의 경우 1과목(3학점)을 이수이고 상담전공/관련전공 석사가 아닌 경우 4과목(12학점)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Missouri-Columbia 대학에서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를 받으려면 최소 48학점과 600시간의 인턴십이 요구된다. 구체 전공에 따라 학점이 더 요구되기도 한다. 상담실습(Practicum: 9학점)은 교내 대학상담소, 중·고등학교, 또는 실습 담당자가 인정하는 다른 곳 중 두 군데서 실습을 해야 한다. 이 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상담실습(practicum)에 앞서 pre-practicum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원한 내담자와의 3회기 상담 기회를 통해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상담회기는 모두 녹화되며 여러 가지 임상평가기술 등도 연마하게 된다. 박사과정은 APA 인준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Wisconsin-Madison 대학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할 때 최소 63학점이 요구되고 3년간 full time으로 등록을 하고(residency) 학과목을 택해야 하는데 박사과정은 APA 인준 프로그램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 대학의 교과과정은 1년간의 인턴 포함 최소 5년이 소요된다. 석사과정은 48학점과 600시간의 실습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portfolio를 준비하여 상담자로서 발달하는 과정을 기록(Case conceptualization, presentation skills, counseling skills, multicultural skills, consultation skills, professional identity, scholarship, specialization 능력)하며 지도 교수와 다른 교수들이 이 portfolio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Pennsylvania State 대학은 주 정부의 상담자 면허증 취득을 위해 고안된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석사학위 후 10 학점을 더 취득하고 600시간의 임상실습을 해야 한다. 대체로 미국 내 상담석사과정은 최소 두 학기 이상을 학교 내 상담소에서 상담 실습생으로서 practicum을 이수하고 나머지 두 학기 동안은 학교 밖의 다양한 상담기관 등에서 인턴십의 실습훈련을 하게 되어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대개 1년 동안 360시간의 direct contact hours(직접 내담자를 만나고)와 45시간의 집단상담, 실습 받는 기관의 슈퍼바이저로부터 주 1회의 슈퍼비전, 학교에 등록된 교수로부터 주 2시간씩의 집단 슈퍼비전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국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석·박사 학위과정의 특징으로는 상담자 훈련에 필요한 실습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실습 과정이 상담자 자격증 취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와 상담 교육프로그램 인준위원회(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의 인준을 받는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APA의 인준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원의 상담 박사과정의 경우, 대개 2년(4-5학기)의 상담실습(practicum)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 1년은 predoctoral internship을 하도록 짜여져 있다. 학위과정 중의 practicum은 on-site practicum과 off-site practicum으로 나뉘는데 on-site인 경우 대학 캠퍼스내 상담소나 학과내의 in-house clinic에서 일정 시간을 슈퍼비전 받게 되며 모든 회기는 비디오로 녹화되어 1주일에 1회씩 슈퍼비전을 통해 분석 받게 된다. off-site인 경우 석사과정의 인턴십과 비슷한 구성이지만 주

로 어려운 내담자 문제를 다루게 되며 반드시 Ph. D. Licensed psychologist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마지막 2학기 동안 predoctoral internship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1년간 총 2000시간을 수련하게 되며 그 중 500시간은 직접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주일에 최소 15-17사례를 보며 검사와 평가, 집단상담, 사례회의, 위기개입, 다양한 세미나와 접수면접 등 많은 실제와 같은 실습훈련을 겪는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지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 인턴지원서를 내고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되어 일하게 된다. 2005년의 경우 박사과정 학생 중 23%가 인턴십을 가지 못했으며 인턴십이 안되면 자동으로 졸업이 1년 연기된다.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인턴십 site에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쟁을 치뤄야 하는데 보통 좋은 site의 합격률은 3% 정도라고 한다(퍼듀대학교 이동귀 교수<sup>1)</sup>와의 메일에서).

#### 본 연구결과와 미국 대학원간 비교

앞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과과정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상담전공 대학원 교육이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상담자를 키워 내다기보다 지식 습득을 주요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선 우리나라 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전체 학점의 수도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 우리나라 박사과정의 경우 평균 34.47학점으로 미국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48학점-68학점(상담/관련전공 석사가 아닌 경우 더 늘어남)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미국의 경우에서 보았던

1) 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몇몇 대학교 중 보스톤 대학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APA 인준에 필요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3년간의 학위과정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모두 마쳐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학원 교과과정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대학원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습훈련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습훈련 과목들은 보통 3학점으로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한 학기(16주간) 동안 하면 총 48시간의 실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실습 과목들은 함께 수업 받는 학생들이 서로 돌아가며 자신의 상담사례를 지도받거나 2-3명이 한꺼번에 지도받기 때문에 8명이 수업을 듣는다면 한 개인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최대 2-3번 정도이다. 이러한 과목을 2과목 이수한다고 해도, 총 실습 시간은 50시간을 넘지 않게 된다. 만일 상담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본인의 사례가 없어서 슈퍼비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즉 수업을 들은 것이지 사례지도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실습시간으로는 실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났는지 상담자로서의 자질은 어떠한지 등 전문상담자로서 필요한 질적인 성장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스톤 대학의 경우, APA 인준 프로그램을 따르므로 박사과정의 경우 최소 1년간의 full time 인턴십을 거쳐야 한다. APA 규정에는 인턴십 과정은 총 60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240시간의 직접적인 상담과 매주 한 시간씩의 슈퍼비전, 1시간-1시간 30분간의 정기적인 집단 수련감독과 전문가로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기록, 의뢰, 회의 등)에 참여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대개의 경우 약 1년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치기 전에 1년간의 practicum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습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자격을 관리하는 면허증(licensure) 제도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나 기관이 일정 수준의 훈련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입증해주는 자격증(certification)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48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는 정신건강 상담을 규제하는 면허증 제도가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LPC(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로 자격증을 주고 있으며 LMHC(Licensed Mental Health Counselor), LCPC(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재활상담, 약물상담, 진로상담등을 LPC에 포함하거나 따로 관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CACREP(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이 인준한 교육과 훈련과정은 그대로 수용하지만 아직 임상 훈련을 받지 못한 상담자에게는 임시 자격증(associate licenses)을 주는 곳도 있다.

대학교의 상담관련 전문 프로그램들은 자발적으로 CACREP, APA의 인준을 거친다. APA와 CACREP 외에 상담자 자격증을 주는 기관으로 AAMFT(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CORE(Council on Rehabilitation Education), AAPC(Americ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ing)등이 있다. 이들은 전문상담,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 과정을 평가하는 인준기관이다. 이러한 인준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규제하기 위해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학점보다 더 많은 과정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인준기관으로 알려진 APA와 CACREP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PA Council of Representatives

APA는 1953년부터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인준해 왔는데 2004년 현재 APA로부터 전문심리학자(counseling psychologist) 프로그램을 인준 받은 대학은 73개 이다. 초기에 인준 받은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심리학과 소속이었으나 점차로 심리학 소속의 프로그램은 감소하고 교육학과 소속의 프로그램 인가가 증가하였다. 각 대학은 임상심리, 상담심리, 학교심리 영역에서 또는 이 영역들의 통합영역에서 박사급 대학원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박사 후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인준을 요청할 수 있다. APA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① 인준 요청 자격 ② 프로그램 철학·목표·교과과정 ③ 이러한 철학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예를 들어 교수, 학생, 물리적 환경 등) ④ 문화적,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훈련 ⑤ 학생-교수 관계 ⑥ 프로그램 자체평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장치 ⑦ 관련인들과의 교신 및 자료들의 공개 ⑧ 자격증을 인준하는 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명문화 하고 있다. 1953년에 인준된 12개의 프로그램 중 현재 남아 있는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으로 심리학과 혹은 교육학과 고유의 프로그램들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통합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총 21명으로 이루어진 APA 자격위원회에서 임상심리, 상담심리, 학교심리 영역에서 박사급 전문심리학자(professional psychologist)의 자격증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다. 전문심리학자란 일반 대중에게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APA에서 인준을 받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의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full time 학생으로 대학원에 등록하여 재학해야 하며 인턴십을 마쳐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원에서 적어도 2년 내지 3년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중 1년은 full time이어야 한다. 또 인턴십 프로그램은 박사과정에서 연마한 기술과 훈련을 바탕으로 전문적 역할과 책임을 지니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해야 하는데 최소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학교 심리학은 10개월) 실습해야 한다.

### CACREP의 인준 기준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가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며 모든 학생들은 practicum, internship, and supervised 경험이 요구된다. 인준 받은 프로그램 중 모든 석사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은 아닌데, 정신건강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치료, 학교상담, 노인 상담 등은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영역보다 12학점 많은 60학점이어야 한다. 인준 프로그램을 심사 받으려면 다음 사항이 필수적이다.

우선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최소 48학점(Mental Health Counseling and Marital, Couple, and Family Counseling/Therapy는 최소 60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며,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최소 96학점(석사학위 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는 상담교육을 전공한 핵심 교수가 최소 3명이 있어야 한다(주임 교수 포함).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적어도 2명의 교수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인준을 받으려면 다음 공통핵심과정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① profession identity ②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③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④ career development, ⑤ helping relationships ⑥ group work ⑦ assessment ⑧ research and program evaluation. 또 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분야는 career counseling, college counseling, community counseling, gerontological counseling, marital, couple, and family counseling/therapy, mental health counseling, school counseling, student affair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doctoral level only) 등이다.

이 인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임상 경험을 강조하여 수련감독 하에서의 100시간의 실습 경험(practicum)을 요구한다. 즉 직접적인 상담 경험, 개인, 집단 40시간/개인 또는 2, 3인 이내 수련자와 매주 한 시간씩 한 학기 동안 수련감독자와 만남/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의 정기적인 집단 수련감독 등이 포함된다. 상담실습 후 internship 600시간에는 ① 240시간 직접적인 상담 ② internship 동안 매주 한 시간 수련감독자와 만남 ③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의 정기적인 집단 수련감독 ④ 상담 외에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활동인 staff meeting, record keeping, information & referral 등을 익힘 ⑤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시청각 기제를 사용하여 수련감독에 사용 ⑥ 진단, 평가, 연구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의 상담관련 대학원 교과과정은 전문상담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목, 실습시간 등)이나 APA 혹은 CACREP에서 요구하는 상담 교과목 및 실습훈련/인턴십 시간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정택과 도상금(1993)의 연구에서 제시한 수퍼비전 평균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면, 대학원 과정 실습평균은 5.45회 정도로 약 5-6시간 정도였다. 최근에는 대학원 과정에 교육실습(미국의 practicum과 같은) 과정이 개설된 대학교도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으며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대학교는 대체로 교내에 상담실습기관이 있고 그곳에서 최소 1사례에서 최대 3사례 정도를 실제 상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습수업을 이수해도 전문상담자로서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과목에서 ‘개인상담실습’이나 ‘집단상담실습’과 같은 과목들은 상담이론별로 또는 상담영역별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실습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 과목이 수퍼비전 과목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제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이나 내용에 관한 수퍼비전(practicum 혹은 internship에서 제공되는)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이론/실제에 관한 교육 및 상담자 교육에 관한 과목들은 상담전공 과목에 포함하고 실제 현장 상담 경험에 대한 수퍼비전 및 수련은 실습훈련 과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을 통해 실습훈련과정의 범위와 이수해야 할 실습 내용(상담 시간, 수퍼비전 시간, 사례회의 시간 등)들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제언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 교과과정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상담자 양성에 필요한 실습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상담자 양성에 필요한 지식교육과 실습훈련 과정에 적절한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

전문상담자 모델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과학자-실무자 모델(Scientist-Practitioner)일 것이다. 이것은 1949년 Boulder 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50년이 넘게 상담/임상 등 대부분의 심리학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모델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연구와 실무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여 과학자와 실무자의 두 역할을 동시에 훈련받고 동시에 실천해 나가는 연구자이면서 실무자인 전문가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후 1990년에 열린 과학자-실무자 교육/훈련 전국회의(at Gainsville, Florida)에서는 특히 연구와 실무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연구와 실무에서 얻은 바가 통합되어 지식의 기초가 되고 실무에 응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1992년에는 상담심리에서 과학과 실무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되었다(Hepper, et. al., 1992, 최혜림, 1998에서 재인용). 통합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과학자-실무자 모델이 반영되는 교과과정을 개혁한다. 이론과 실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방법과 교과 과목을 만든다. 둘째, 실험연구논문이 아닌 실무와 관련된 연구나 현장경험 논문의 발표를 증가시킨다. 셋째, 과학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현장을 개발한다(예: 인턴 프로그램). 넷째, 과학자들과 실무자들 간의 대화를 활발히 증가시킨다. 즉 과학자 역할, 실무자 역할보다 상담이라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한다는 것이다.

Belar와 Penny(1992)는 과학자-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이론교육, 실무교육, 연구실습, 실무실습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교육(Didactic Scientific Component)으로 이것은 과학과 실무를 통합하여 문제를 공식화할 충분한 지식의 근거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상·비정상 행동에 대한 이해, 인간의 전생애 발달, 개인차, 윤리규준, 연구방법, 통계, 심리 측정, 심리학의 역사, 행동의 생리적 근거, 행동의 인지정서적 근거, 행동의 사회적 근거, 개인행동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심리검사와 측정, 연구방법론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실무교육(Didactic Practice Core)으로 이것은 문제해결에 과학적 사고와 행동을 사용하고 실무에서 가설검증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면접기술, 자문기술, 사례/문제 파악에 따른 과학적으로 타당한 치료방법을 익힌다. 또한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법적, 전문적 책임에 대해 안다. 과학자-실무자의 전문가들 학회 모임에 참여하며 수퍼비전 및 교수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셋째, 연구실습(Scientific Experiential Component)으로 학위논문 및 여러 가지 연구과제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원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실제 상담을 하면서도 연구 지향적이고 연구를 하면서도 실제 상담에서의 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실무실습(Professional Practice Experiential Core)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론과 실체를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개인·집단·조직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수집, 정보의 공유 등 과학을 실무에 체계적으로 응용한다. 비판적인 사고과정, 가설 검증, 다른 과학적 방법들을 훈련을 통하여 경험적 활동에 통합한다. 인턴, 레지던트, 현장경험 같은 집중적인 실무훈련을 일 년간 수퍼비전 하에서 받아야 한다. 특히 인턴 프로그램은 수퍼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짜여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대학원의 교과 과정은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과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과과정은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이론적 지식습득’과 ‘현장실습’을 통해 상담실제의 교육간 교과목 비중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상담자 양성에 적절한 실습훈련 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대학별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학위만으로는 부족한 상담 실습 시간(개인/집단상담, 슈퍼비전 등)을 보충하기 위해, 학위 취득 후 상담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수련기관을 찾아가거나 세미나/워크샵 등에 참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애쓰고 있다. 각 대학교 및 여러 단체, 기관 등에서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지원하는 석사 학위 취득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각자 상담현장경험을 할 수 있는 site를 구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개인비용을 부담해 가며 상담 슈퍼비전을 받고자 한다. 대개 학위 취득 후 1-2명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으며 상담자로서 성장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슈퍼바이저에게 한 두 사례씩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자로 커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대학원 교과과정과 전문상담자 자격증간에 긴밀한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전공생들은 대체로 상담관련 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자격증을 취득하려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급하고 있는 상담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그리고 민간 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자격증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심리학회와 상담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분과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공, 학력 및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상담심리사 1급의 경우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자로서 1년 이상의 상담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상담심리사 2급 자격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본 학회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상담심리사 2급의 경우, 상담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는 비 상담분야 학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자격시험을 볼 수 있고, 이를 통과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 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자 자격증 제도는 일관성 있는 자격 기준과 실습훈련을 강조하는 수련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정한 시간 내 이 요건들을 채워 나가는 동안 상담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요구되는 수련내용을 보면, 상담심리사 2급의 경우 석사과정 동안 실습 과목(실제 내담자와 상담을 하고 심리검사를 실시·채점·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과목)을 이수한 학생도 학회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습과목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실습을 위해 다른 기관에서 인턴쉽을 하거나 학회 수련위원회가 마련하는 실습시간을 통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해야 하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즉 상담관련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실무능력 수련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편이어서 전공생들

이 이 자격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 이외의 실습시간(개인상담, 집단상담, 슈퍼비전 등)과 교육시간(세미나, 워크숍 등)을 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원 교과과정에는 전문상담자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충분한 실습훈련 시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대학별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되는 바이다. 또 학회에서 요구하는 수련내용들은 대학원 교과과정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각 대학에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한점이 있어서 한 대학이 교육과 훈련 모두를 비중 있게 개설하기 어렵다면 대학별로 실무교육을 혹은 실습훈련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학간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원 과정에서 현재 개설해 놓고 있는 상담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이수 학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규정된 학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결과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에서 실제 취득한 학점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석사: 34.11학점, 박사: 34.47학점). 석사과정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과한 학점보다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있으나 박사과정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석사과정 학생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석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과 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이숙영과 김창대(2002)은 한국 대학원의 석사 과정은 24학점(8과목), 박사과정은 36학점(12과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의 교과과정 이수는 학점으로 제한되었다기보다 실제로는 교육연한(2-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육연한 내에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에 관한 제한이 필요하며 이론 과목과 더불어 상담의 실재를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 및 체제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실습훈련 과목에 대한 필수 학점을 늘림으로써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다양하고 일반적인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실무교육과 실습훈련 과목 이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체계적인 실습을 위해서는 대학원 교과과정내 인턴쉽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상담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과정 동안 대학 내 상담소 혹은 대학이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일정 시간 내 실습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제에서 규정해 놓은 학점 이상의 과목 이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담교육과 훈련을 전담하는 전문대학원을 운용하거나, 기존 석사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 이외에 1년간의 인턴쉽에 해당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대학원 석·박사 커리큘럼만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자 양성에 필요한 실습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대학간 협력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대학 특성에 따라 실습훈련 과목에 중점을 두어 인턴쉽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과 이론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대학 간 상호보완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별로 특화된 과목과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타 대학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학회와 대학간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앞서 논의 부분에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듯이 대학과 학회간 긴밀한 연계성은 상담자 자격증의 질적인 측면(자격증 획득과 유지에서)과 상담자 정체성,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학회 차원에서는 우수한 교과과정 및 특화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대학교를 명확한 기준으로 선별하여 인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원 교과과정 동안 이론의 습득과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이러한 노력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질적으로 우수하면서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필요하다.

이 방안은 상담전공생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또다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배우러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교육과 실습훈련을 받도록 교과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학원 교과과정의 체계적 구조화는 ‘상담심리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과 질적으로 우수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상담자에 대한 사회적 위상도 역시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담관련 대학원 교과과정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전문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대학원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고 연구에 사용된 조사 대상의 수가 적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정택, 도상금 (1993). 상담자 교육에 대한 연구: 대학원 석사과정 상담 교육의 현황과 전문상담가 양성 인턴십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5(1), 13- 29
- 세계일보, 2006년 1월 23일자
- 오익수, 이명선, 남상인 (1994). 청소년상담인력 개발정책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재창 (1994). 전문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 1-26.
-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 최해림 (1998).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의 협조체계.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제 16집 별책*.
- 한국상담심리학회 (2005). 상담심리사 자격규정. *한국일보*, 2003년 3월 27일자
- Belar, Cynthia D. & Penny, Nathan (1992). National conference on scientist-practitioner education & training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7, 71-75.
- Heppner, Paul et. al. (1992). A proposal to integrate science & prac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 107-122.
- [www.apa.org/ed/accreditation](http://www.apa.org/ed/accreditation)
- [www.bc.edu](http://www.bc.edu)
- [www.counseling.org/cacrep](http://www.counseling.org/cacrep)
- [www.education.wisc.edu/cp/doctoralprogram.htm](http://www.education.wisc.edu/cp/doctoralprogram.htm)
- [www.escp.coe.missouri.edu/counseling](http://www.escp.coe.missouri.edu/counseling)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www.pacode.com/secure](http://www.pacode.com/secure)

[www.work.or.kr](http://www.work.or.kr) 직업정보

원 고 접 수 일 : 2006. 8. 18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1. 8

게 재 결 정 일 : 2006. 11. 11

K C I



## A Study on the Graduate Curriculum for the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Korea

Hae-Rim Choi

Young-Hye Kim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counselo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Korea in producing competent counselors. Courses taken by 70 counselors (35 who completed the doctoral program and 35 who completed the master's degree within last 5 years) were subject to the descriptive analysis, and were compared with the graduate-level counseling training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 few notable differences were identified. The average course requirements for the Korean graduate programs were 34.11 credits for the master's and 34.47 for the doctorate whereas there were 48 requirements for the entry level and 48 for the doctorate for the American graduate programs. The Korean graduate programs typically offered two courses for counseling practicum, but no internship was required at all, whereas the American graduate programs provided three to six courses for counseling practicum, and a one-year internship was required. In addition, the Korean graduate programs and the requirements for certified counselors had little connection with each other whereas the curriculums for the American graduate programs were designed to meet the certificate requirements for APA, CACREP, or other agencies.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future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unselors in Korea.

*Key words* : graduate curriculum,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certification